서울신문
2015년 05월 27일 (수)
15면 전국

김포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탈바꿈

올 후반기 착공… 2017년 완공 계획
54m 전망타워·전시관·광장 등 설치
395억 투입 접경지역 관광자원화 추진

안보교육장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변신할 경기 김포에 있는 애기봉. 김포시 제공

안보교육장으로 활용돼 온 경기 김포 애기봉이 평화생태공원으로 탈바꿈된다. 애기봉은 북한 황해도 일대를 비추는 등탑 문제로 진보·보수 진영 간에 여러 차례 충돌이 빚어지고, 이곳에서의 국내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 관계의 변수가 됐던 곳이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월곶면 조강리 1-9(4만 5000㎡) 애기봉을 접경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395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들여 올 후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54m 높이의 전망타워를 비롯해 평화·생태전시관, 평화광장 등의 시설물이 들어선다.

시는 2009년 8월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한 뒤 2012년 3월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건축허가를 완료한 뒤 11월 국방부로부터 기본설계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 시는 지난 3월 조달청 원가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7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소유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직접 관리에 들어가며, 평화·생태전시관과 주차장 공사 기간(9개월 예정)에는 애기봉 개방을 중단할 방침이다.

애기봉 정상(155m)에서는 임진강 너머로 북한의 송악산과 선전마을 등을 볼 수 있어 관광객과 실향민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1993년에는 실향민들을 위해 망배단이 세워졌다. 주변에 문수산성(사적 139호), 덕포진(사적 292호), 고정리지석묘(경기기념물 91호) 등의 문화재가 있다.

시 관계자는 "애기봉의 변신을 통해 새로운 의미의 접경지역 관광자원화를 추진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 다음달부터 2018년까지 국비 54억원과 시비 36억원 등 90억원을 들여 2.74㎞의 애기봉 진입도로 폭을 차도 8m, 자전거도로 3m, 인도·측도 등을 포함해 15m로 확장할 계획이다. 김시용(김포3) 경기도의원은 "통일한국을 향한 디딤돌이 될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벨트사업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5 X 16.3 cm

경인일보
2015년 05월 27일 (수)
17면 문화

경기관광공사, DMZ 기념품 제작·유통사업자 공모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세계 유일 분단현장인 DMZ를 활용한 관광기념품 제작을 위해 기념품 제작 및 유통 사업자를 26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공모한다.

모집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하는 기념품 제작과 유통 사업자로, 선정 사업자는 향후 2년간 DMZ 및 광복 70주년 관광기념품 디자인 도안 29종의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안보·생태·역사 관광지인 DMZ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동시에 사업자별 판매처와 임진각 평화누리 등 매장에서 유통할 수 있다.

홈페이지(http://ggtour.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4층 경기관광공사) 또는 이메일(austin200@gto.or.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31)259-4753

/유은총기자 yooec86@kyeongin.com

11.7 X 6.5 cm